

지역 소식통

청보리 등 생육 조사 교육

정읍시는 최근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계 사료작물인 IR(이탈리아타이그라스)와 청보리 생육 조사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농촌진흥청, 충청도 전라도 축산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교육 참석자는 사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 전 발열 검사를 실시한 후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동계 사료작물 생육 조사 교육으로 수확기 생육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 현지 재배 포장에서 축산과 학원 김원호 박사의 현장 실습으로 진행되어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은 5월 15일 전국 시군별로 실시하는 동계 사료작물 수확기 조사에서 IR 청보리, 호밀 초종을 대상으로 카(草長), 생육상황 생산량(톤/ha) 등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생육상황 조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영농안정기금 2차 용자

부안군은 2020년도 영농안정자금 용자 80억원 중 지난 9월 1차로 65농가, 27억원을 지원 완료했으며 2차 3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금리는 농가부담 1%로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도 영농안정기금 2차 추가분을 조기 시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농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창대교 건설 의지 천명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예타 현장조사서 권익현 부안군수, 관광형 노을대교 건설 당위성 피력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안) 일괄예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외부 연구진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서 국도 77호선 관광형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과 국도 30호선 선형개량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사업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수요추정, 경제성 분석, 기술적 검토, 비용추정, 도로안전성 등과 해당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조사하는 자리로서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되며 용역기간은 올 연말까지 추진된다.

공공기관 노사 상생의 초석 다지다

공무직노조 정읍시 노사협의회

정읍시와 전국공무직노조 정읍시지부는 지난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협력력을 위한 '정읍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유진섭 시장과 이권로 지부장을 비롯한 노사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사는 직원복지와 복무에 관한 6개 협의 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시정 발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수당 및 업무분장 등 같은 근무 여건 개선과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안 마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향후 시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정기적 소통을 통해 신뢰 형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 공무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충 처리 등 화합과

권익현 군수는 현장조사에서 세계 3대 선셋(SUN SET) 명소보다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 변산반도에서 지난 1999년 당시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는 해넘이 행사가 개최되고 현재까지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을 강조하고 노을대교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노을대교 구간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부산~과주간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부안 변산과 고창 해리를 관광형 노을대교로 연결할 경우 새만금 신항만(2025년 완공)과 새만금 국제공항(2028년 완공) 등의 시설과 함께 중

국관광(요우키) 천만시대 대중국 교류의 핵심관광자원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도 30호선 마동~내소사 구간 선형개량사업은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의 과적활 동장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함께 도로 급커브 및 시거불량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시급한 도로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지역내후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중국시장 신규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하고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해안권 도시들의 역사·문화관광상품을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관광형 노을대교 건설 등이 꼭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생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권로 지부장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 측과 협력해

나갔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진섭 시장은 "시와 노동조합의 노사관계가 공공기관 노사 상생문화를 선도해 나갈 비전이다"며 "노사 간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시민행복행정을 실현하는 데 함께하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와 전국공무직노조 정읍시지부는 지난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협력력을 위한 정읍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곳 생수 공급 재개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수 공급을 중단했던 내장산계곡약수, 정읍사달남약수, 수성정정약수, 용혈약수 등 4개소의 지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생수 공급을 재개했다.

이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조치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75일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생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평소 이들 시설의 생수를 무상으로 이용하던 가정과 식당, 숙박업소, 찻집 등 주민과 자영업자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1천여 건 접수됐다.

이번 생수 공급 재개로 약수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지난 12일 오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윤준병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2021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고창군·민주당, 지역현안 공조

정책협의회 갖고 예산확보 논의

고창군이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윤준병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2021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라북도의회 의원도 함께 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안건으로는 고창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개정과 고창-부안 간 노을대교 건설사업(국도77호선) 등 14건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대상 사업 중 지역현안사업이 중점 논의됐

다.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산지유통시설(APC) 지원사업 등 15건의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확보와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은 원천으로 인한 고창군민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법안 마련 등 함께 공조해 가자"며 "국가예산 확보의 경우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협의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창군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개 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정읍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13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기업 및 기관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읍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 또는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호 간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여성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일자리 창출, 고용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여성친화일촌기업은 (주)거성중공업, 정읍로컬사업단, (주)디에스판넬, 예류엔터테인먼트, (주)큰사람아카데미, (주)다원에프에스, 대경직물, 대성스크린, 모던텍,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읍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지역활성화연구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전라북도정읍시지회 등 총 20곳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에서는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하고 여성 인력 채용,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실현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게 된다.

정읍새일센터는 여성 인턴 연계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 취업상담사의 전담가업 관리와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발굴 등 협약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부터 집단상담, 직업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문화관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063-539-569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